국제재단 시력우선 사업 30 주년 기념

국제재단(LCIF)은 시력우선 교부금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해 온 시력 건강 향상 및 시력 검진 봉사의 30 주년을 기념합니다.

시력우선 프로그램은 1990 년부터 실명 퇴치 및 예방과 기타 시력 질환 치료를 시행하며 소외 계층의 시력 관리 체계를 강화해왔습니다. 라이온스는 의료 종사자 및 파트너 단체와 협력하며 시력우선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4 억 8,800 만 명 이상의 이웃들의 시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시력우선 프로그램은 안과 치료 서비스 제공, 안과 전문의 교육, 기존 안과 치료 체계 인프라 개선, 안구 건강 교육 및 재활 기회 확대 등과 같은 시력 보호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시력우선 프로그램: 숫자로 보는 시력우선 사업 결과

- 112 개 국가에서 시력우선 교부금 3 억 7 천만 불 상당 1,330 건 이상 사업 실시
- 백내장 수술 9 백만 회 이상 실시
- 안과 의료진 및 지역사회 의료 종사자 2 백만 이상 교육
- 안구 센터 1,350 곳 이상 건설, 확장 또는 장비 구축
- 트라코마 관리 및 수질 문제로 인한 실명 또는 감염 개선용 약품 1 억 8 천 5 백만 회분 이상 배포 및 수술 95 만 회 실시
- 강변 실명증 및 흑파리로 인한 기생충 감염 확산 방지용 약품 3 억 2 천 5 백만 회분 이상 배포

LCIF 와 라이온들의 시력우선 프로그램은 세계적 명성을 가진 시력우선의 전략적 파트너 세계보건기구 및 카터 센터, LCIF 시력 파트너 스페셜 올림픽, 존슨앤존슨 비전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이웃들에게 예방적, 치료적, 재활적 시력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구드런 잉봐도티어 재단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전 세계 라이온들은 우리가 세계 곳곳의 시력 분야에 미친 위대한 영향력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LCIF 시력우선 기금을 통해 1925 년 헬렌 켈러 여사의 ‘맹인의 기사’가 되어 달라는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시력우선 사업 출범 이후 30 년간 우리는 많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력우선 사업의 유산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시력 분야에 더욱 역사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LCIF 교부금을 통한 라이온들의 시력우선 봉사로 시력 문제에 큰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여전히 시력 질환이나 실명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22 억 명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잉봐도티어 이사장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시력 분야에 대한 LCIF 와 라이온들의 노력, 특히 시력우선 프로그램을 통한 지난 30 년간의 노력은 전 세계의 수많은 이웃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라이온들의 봉사에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는 LCIF 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력보존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라이온 및 여러 단체가 계속해서 LCIF 와 시력우선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재단 시력우선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ionsclubs.org/SaveVision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라이온스재단(LCIF)이란:

국제라이온스재단(LCIF)는 국제라이온스클럽의 자선 기관입니다. 1968 년에 설립된 국제재단은 교부금 지원을 통해 라이온들의 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강화하며 지역사회와 전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국제재단은 미국 자선 평가 단체 Charity Navigator 의 모범적인 평가 기록을 자랑합니다.